

#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총력

# 최훈 행정부지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현장점검

### 전북도, 올해 가축 개량화·스마트 축산시설 보급 등 4개 분야 1276억원 투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위기 속에 서도, 도내 축산농가 수익은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2020년 소, 돼지 사육농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으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 가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사육비 등이 포함된 2020년 도내 소 사육농가의 '농가 조수익'은 전년 대비 930억원이 증가한 7,791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수치이고 전국 증가율에 대비 약 4%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돼지 사육농가는 전년 대비 1,061억원이 증가한 8,71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2019년 대비 kg당 406원 상승한 돼지가격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가정식 소비가 약 70%를 이루는 현 축산물 소비(유통) 구조에서(소 73.5%, 돼지 61.8%, 축산물품질평가원)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용 식재료 수요가 늘어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북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가축 개량화, ▲스마트 축산시설 보급, ▲고품질 조사료 공급,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등 4개 분야에 1,276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차별화된 가축 개량 정책 추진으로 경쟁력 우위 선점

2021년 전국 최초로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에 대해 부모 소 확인검사를 의무화해 정확한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가축시장 운영으로 전북농우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스마트 축산시설 보급으로 생산성 향상 제고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가축질병 차단, 생산성 향상 등 기존 축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 축산시설 보급에 484억원을 투입, 노동력 절감과 최적의 사양관리로 생산성을 20% 가량 높일 계획이다.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현재, 도는 전국 2,738천 톤 조사료 생산량의 20.7%인 568천 톤을 생산(국내 2위)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부터 시작되는 수입 조사료 시장개방에 대비해 조사료 품질과 자급률을 향상하고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551억원을 투입해 생산비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축산악취 개선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냄새 중점관리 대상 확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관리, 축산농가의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교육 확대 등에 208억원을 투자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축산의 조기 정착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방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2~4월)를 맞아 지난 19일 도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최 부지사는 지난해 7~8월간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된 장수군 내 국도 13호선 수해복구 공사현장 2개소(장수군 장수읍 식전리, 산서면 오성리)와 전주시 도토리골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를 방문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이 추진 중인 장수 식전지구(17억원)와 오성지구(16억원)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 유실된 부분을 긴급복구, 임시개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 방문한 전주시 도토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지난 2019년 4월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지난해 총사업비 89억원을 확보해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오는 4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최 부지사는 공사 현장 내 절개지 등 안전취약 시설 및 해빙기 굴착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방약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해빙기(2~4월)를 맞아 지난 19일 도내 현장을 점검했다.

아울러, "급경사지에 대해 주택 주변 절개지나 축대 등의 시설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안전문제는 도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

장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동절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급경사지 등 3,216개소를 지난 2월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군산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 전북도, 2022년까지 총사업비 220억원 투입... 질 높은 의료혜택 제공

전북도가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등 진료시설 현대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된 군산의료원의 진료시설 현대화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취약계층 진료와 공공보건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20억원(국비 110억원, 도비 110억원)을 투입, 최근 의료환경을 반영한 종합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응급의료센터에는 감염방지를 고려한 감염격리실, 출입구, 환자분류소와 그 밖에 보호자 대기실,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응급입원병실 100병상을 추가해 응급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또한, 수술실은 진료과의 특성에 맞는 수술장비

도입과 쾌적한 수술환경을 조성해 질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수술실과 외부와의 차단시스템을 강화해 감염 위험률을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등을 현대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보건의료 시설·장비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실시

### 26일까지 유아용 젖병세척제·기저귀 등 수거·검사

전북도가 유아용 젖병세척제, 기저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간 유통 중인 위생용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공무원, 소비자 위생용품 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15개반 30명)이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가정과 요양시설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에 대해 수거를 실시한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세척제 규격 준수 여부, 기저귀 유해원소 함유 여부 등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며, 부적합 이력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노창환 도 건강안전과장은 "이번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 사용 위생용품 집중점검을 통해 사전 안전성을 확보, 도민 보건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상반기에 도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영업신고·변경 여부, 시설기준 위반, 시설 전반기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 도내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 '캐릭터 배지' 제작

### 테마별 체험활동 수행 추진력 제공하고자 입장 시 나눠주는 여권 완성 하면 전달

전북도어린이창의체험관은 테마별 체험활동의 흥겨운 추진력을 제공하고자 '캐릭터 배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입장 시 나눠주는 여권에 테마별 체험활동을 수행하고 사진, 영수증을 붙이고 스탬프를 찍어 완성하고 있다.

찰칵찰칵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꾸며서 색칠해 오려 붙이고, 반짝반짝 선물가게에서는 사고 싶은 선물을 사보고, 바코드 찍어서 계산하고 영수증을 붙인다.

뛰뛰빵빵 운전연습소와 부릉부릉 정비소(어린이 운전면허증), 똑딱똑딱 공사장(어린이 건축가), 꿈틀꿈틀 상상계곡, 폴짝폴짝 파티장을 체험하고 스탬프를 찍을 수 있다.

아이들에게 테마별 체험활동 수행에 흥겨운 추진력을 제공하고자 여권 완성 시 캐릭터 배지 전달이라



는 목표를 제시해 아이가 체험을 대충대충 마무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체험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완성할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자 캐릭터 배지를 제작했다.

김정호 도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아이들이 스스로 발전하고자하는 노력에 한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다"며 "이들 돕기 위해 맘껏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